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청구도』의 지명 비교 연구

임종옥* · 김기혁**

A Comparative Study of Place Names on 『Daedongyeo-jido』 and 『Cheonggu-do』

Lim, Joung Ox* · Kim, Ki-hyuk**

요약 : 본 연구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수록 지명을 『청구도』와 비교함으로써 목판본 제작 과정에서 필사본을 바탕으로 목판본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했고, 이에 반영된 수록 원칙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두 지도가 동일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록 지명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구도』에서 가장 많이 삭제된 지명은 방리 지명으로 목판본 제작시 이의 삭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명이 삭제된 대신 다른 유형의 지명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대동여지도』의 추가지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산과 하천, 해안 지명과 함께 진(鎭), 진보, 역참 및 창고지명 등이다. 수록 지명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 지도 제작 과정에서 수록 원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추가지명 중 인문 지명의 분포는 자연지명과 달리 지리적인 분포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군사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는 진보, 봉수, 역참, 창고 지명은 북부 지역에서 집중 분포한다. 적지 않은 목장 지명이 새롭게 기재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지명을 수록하는데 밝혀진 원칙은 지도 제작의 사회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주요어 : 『청구도』, 『대동여지도』, 목판본과 필사본, 고지도

Abstract :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se the place names on 『Cheonggu-do』(『靑邱圖』, manuscript edition, 1834) and 『Daedongyeo-jido』(『大東輿地圖』, woodblock-edition, 1861). Though the same person—Kim, Jungho(金正浩)—published those maps, and the latter was based on the former map, place names on those maps are very different. The hypothesis is that those different information on maps were not from the cartographic, but from the social aspects at that times. The whole township names on 『Cheonggu-do』were erased in 『Daedongyeo-jido』. The other names such as mountain, river, port, castle, beacons, official waerhouses were recorded instead of township. Especially military names which were recorded newly in 『Daedongyeo-jido』, such as castle, beacon, ranches for the defense of nation, was geographical distributed in a strategic and key point in the northern and coastal area. This shows that there were rules for the mapping of 『Daedongyeo-jido』 and those rules could be come from the social demand.

Key Words : 『Cheonggu-do』, 『Daedongyeo-jido』, woodblock and manuscript edition, oldmap.

1. 들어가면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도는 지리적인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하여 축약하여 표현한 것으로, 지리정보의 소통에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사물의 위치 정보는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도의 발달은 인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 서구사회에서 15~16세기 새로운 대륙의 발견으로

탐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측량 등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수반하였고 지도 제작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이미 지도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이찬, 1991). 조선시대 들어 세종조 때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국가 통치와 왕권 확립을 위하여 정확한 전국 지도를 제작하였다. 조선 후기 들어 청나라의 등장으로 북방 영토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

* 부산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jong_ox@hanmail.net)

** 부산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khkim@pusan.ac.kr)

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업경제가 발달하면서 지도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지도 제작 기술은 큰 발달을 보게 되었다(한영우, 안희준, 양보경 외, 1995). 18세기 들어 군현도, 도별도, 전국지도 등 다양한 스케일의 지도가 활발히 제작되었고,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정상기(鄭尙驥, 1678~1752)가 『동국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조선 전도 제작은 전기를 이루었다.

19세기 들어서는 대축척 조선 전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이 시기의 지도 제작자 중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이는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 생몰년 미상)이다. 그는 1834년에 『청구도』를 제작하였고, 1861년 우리나라 고지도의 정점(頂點)에 있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이하 『대동여지도』)를 교간(校刊)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1861년 이전에 제작된 대축척 조선전도들은 공통적으로 방안도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도법은 18세기 제작된 20리 방안식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들 지도에 묘사된 지리정보는 서로 유사하다. 이는 『대동여지도』가 이전에 축척된 지도 제작 기술과 지리정보가 종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대동여지도』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연구의 흐름은 크게 일제강점기에서 1970년 이전과 이후,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구분된다(배우성, 2006). 1970년대 이전의 초기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 초점은 인물 김정호에 맞추어졌으며 백두산 등 전국 답사를 통해 지도를 혼자 힘으로 제작하였다는 신비주의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들어 규장각 소장의 『청구도』가 영인되면서 『대동여지도』의 연구 지평도 확대되었다. 『청구도』와 비교가 가능하면서 제작 배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해안선의 실제 모습과의 차이가 파악되었다. 1990년대는 『대동여지도』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대동여지도』의 목판들이 발견되고, 방안도법으로 그려진 군현지도와의 관련성이 소개되면서 연구 범위는 확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소장기관에

서 소장된 대축척 조선전도가 확인되면서 당시의 지도 제작 역량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교 분석을 통한 지도의 계열 파악을 통해 종래 평면적인 연구에서 지도의 맥락 파악을 통한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하여졌다. 이들 연구의 최종 귀착점은 『대동여지도』의 제작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었다(김기혁, 2007).

그러나 이와 같이 연구가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의 지도 제작 과정은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목판본 지도의 홀출함과 지도의 정확성 등 지도학적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지도의 중심 인물인 김정호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도와 관련된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동여지도』는 저본이 된 『청구도』와 비교해 볼 때, 수록 지명과 지리 정보의 묘사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들은 단순히 필사본에서 목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로만 설명될 수 없는 적지 않은 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단순히 종래의 필사본을 밀그림으로 하여 목판본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작 기획에서 다른 측면이 개입되었음을 시사한다.

지도가 목판본으로 제작되는 가장 큰 목적은 사회에서 지리 정보의 공유이다. 소수의 개인 소장 을 위해 제작되는 필사본 지도와는 달리, 목판본 지도에서는 지리 정보의 수록에 대한 적지 않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대동여지도』 제작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로 지도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목판에 판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사본과는 달리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비용의 절감을 위해 판각 지명을 줄여야 하지만 지리 정보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례 사용의 확대가 필요해진다. 둘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명 등의 지리정보는 사회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필사본에 비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록 지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¹⁾.

따라서 『대동여지도』 제작에서 산지와 물길 등의 묘사 방법과 범례 사용의 변화를 기하고, 동시에 수록 지명의 변화를 시도하였을 것이다.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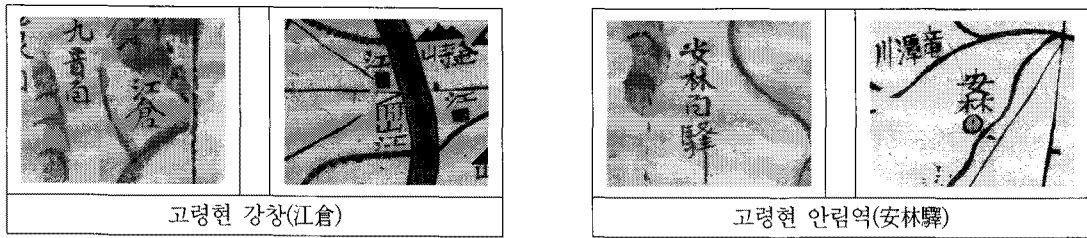


그림 1. 동일한 지명으로 간주된 예 (경상도 고령현 사례)

에서 실용성이 적은 지명은 삭제하고 새로운 지명을 수록했으며, 지명의 위치 정보도 수정하였다. 두 지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단순히 목판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지도 제작 기술의 문제외에, 사회적인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리 정보를 반영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추론들은 『대동여지도』에 대해 종래의 지도학적인 접근을 극복하여 지도의 수요, 즉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²⁾.

지도 제작에 반영된 사회적인 측면은 이전의 필사본 지도와 비교하여 『대동여지도』에 새롭게 추가된 지리 정보를 통해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수록 지명에 가장 잘 반영된다. 본 연구는 목판본 『대동여지도』 수록 지명을 필사본 『청구도』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 수록 지명의 변화에 반영된 원칙과 경향을 규명함으로써 지도 제작 과정에 반영된 사회적인 측면의 일부 내용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 자료 및 분석 방법

『청구도』는 국내외에 10종의 필사본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각 필사본은 책의 구성, 산지 묘사 방법, 주기 표현 방법 등이 서로 다르나 수록 지명은 거의 동일하다(김기혁, 2004). 본 연구에서 지명 추출에 사용된 지도는 규장각 소장의 『청구도』(古4709-21)를 이용하였다. 『대동여지도』는 일부 이본에서 지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861년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의 『대동여지도』(古4709-5)를 사용하였다³⁾. 한편 지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명은 동일 기관 소장의 『청구요람』(古709-21A)과 『동여도』(奎10340), 『대동방여전도』(奎10341) 등과 기존에 발행된 지명 색인집 등을 참고하였다.

분석 자료는 지도에 수록된 텍스트 중 지명만을 이용하였으며 주기는 제외되었다. 별도로 첨부된 『도성도』의 수록 지명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도면이 분리되면서 동일한 지명이 두 곳에 수록된 경우, 범례 사용에 따라 표기 지명이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지명으로 간주하였다(그림 1). 그러나 지명의 전부요소(前部要素)가 같더라도 후부요소(後部要素)의 유형이 다르다면 다른 지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목장 지명은 『청구도』에는 전부요소와 범례를 함께 기재하고 있으나 『대동여지도』에서는 범례만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을 동일한 지리정보로 간주하였다.

이후 추출된 지명은 소속 군현별로 정리되었다. 지명이 월경지에 속한 경우 소속 군현을 기준으로 하였다. 『청구도』에 지명이 두 군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동여지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명 유형은 범례를 바탕으로 하였고, 표시가 없는 경우 지명의 후부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지명에 두 개의 유형이 중첩될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다⁴⁾. 지명의 유형이 불확실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리지와 향토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이 결과 자연 지명은 산, 고개, 하천(하천, 못, 평야), 해안(섬, 만)으로, 인문 지명은 읍치, 방리, 진(포), 진보(진·보·산성), 역참, 창고, 봉수, 목장, 역사지명(고읍, 고성, 고국기). 기타 지명(사찰, 정자, 능침, 사고(史庫), 온천)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된 결과 『청구도』는 12,827개 지명, 『대동여지도』는 11,252개의 지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⁵⁾. 이들 지명은 『청구도』에만 수록되었다가 삭제된 지명(이하 '삭제지명'), 두 지도 모두 기재된 지명(이하 '공통지명'), 『대동여지도』에 새롭게 추가된 지명(이하 '추가지명') 등 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지명에 대해 지역별, 유형별 분포의 변화를 통해 수록 지명의 변화 내용을 파악

하였다. 이후 『대동여지도』의 추가지명을 중심으로 군현별 지도화 작업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분포를 파악하였다.

2. 『대동여지도』의 지도학적 계열과 지명

19세기에 제작된 대축척 조선전도는 <표 1>과 같다. 『조선도』, 『동여』, 필사본 『대동여지도』 등 7종이 있으며 대부분 방안도법에 의해 제작되었다. 『동여』는 표제는 ‘東輿’로 되어 있으나 지도의 1층에 ‘大東輿地圖’가 기재되어 있다. 남북 14층으로 전국을 구분하였으며, 지도를 펼쳐 연결하면 세로 5.2m, 가로 2.9m의 지도가 된다. 방안의 구성 내용은 『청구도』와 거의 유사하다. 『대동여지도』, 『조선도』에는 지도위에 방안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용은 방안도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동여도』, 『대동방여전도』는 『대동여지도』와 좌표 체계가 거의 동일하다.

이들 지도 중 제작자가 비교적 정확하게 밝혀진 지도는 『청구도』(1834)와 『대동여지도』(1861) 뿐이다. 김정호는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등의 지리지를 편찬하였으나 정확한 가계와 생몰 연대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청구도』(1834)는 2책 혹은 4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목은 『청구도』, 『청구요람』, 『청구경위도』 등 다양하다.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나눈 방안지도로서, 남북이 100리, 동서가 70리가 지도의 1면으로 각 도면을 연결시키면 『대동여지도』와 동일한 크기의 조선전도가 된다. 필사본으로 제작되어 목판본 『대동여지도』 만큼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국내외에 10종의 필사본이 확인되고 있다.

『대동여지도』는 전국을 남북 22첩으로 나누어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형태로 제작하였다. 축척의 크기와 10리 방안을 사용한 것은 『청구도』와 동일하다. 각 층이 연속되는 일련의 지도로 되어 있고, 각층의 지도를 맞추면 약 7×3m의 전도가 되도록 하였다. 지도 제1층의 여백에 남북 120리, 동서 80리의 방안을 그려 지도의 축척과 함께 이 지도가 방안 도법으로 만들어졌을 보준다. 현재 각 도서관과 박물관에는 필사본, 목판본 및 이의 모사본들이 약 26종이 소장되어 있다(김기혁, 2006). 이들 지도들은 가채 형태가 서로 다르며, 일부 지도에서는 면 지명이 필사로 추가되기도 한다⁶⁾. 한편 지도의 목판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1매가 있으며,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목제품 수장고에서 11매의 목판이 발견된 바 있다.

<그림 3>은 방안식 도법으로 그려진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의 지리정보이다. 동일한 도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형태가 유사할 뿐 아니라, 수록 지명도 비교적 유사하다. 단지 『청구도』와 『동여도』와 예서는 주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청구도』의 경우 우산도 아래 울릉도의 연혁을 주기로 수록하고 있는데 반해, 『동여도』에서 이 내용을 삭제되고 각 장소에 대한 설명이 주기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의 경우 울릉도의 위쪽에 주기가 있다.

산지, 하천 및 섬의 묘사 내용을 볼 때 지도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섬의 경우 우산도가 표현된 지도는 군현지도인 『해동여지도』와 『청구도』, 『동여』이며, 나머지 세 지도에서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남쪽에 그려진 섬의 숫자는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서 3곳에서 묘사되고, 다른 지도에서는

표 1. 19세기 전만 「대축척 조선전도」

	표제명	소장처	형태	제작연도	형식	제작자
1	「朝鮮圖」	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	필사본	1800~1822 ^{a)}	26책	미상
2	「東輿」	국립중앙박물관	필사본	1834년 이전 ^{b)}	14첩	미상
3	「靑邱圖」	규장각의 7개 기관	필사본	1834	2~4책	김정호
4	「東輿圖」	규장각의 3개 기관	필사본	1857~1859 ^{c)}	22첩	미상
5	필사본 「大東輿地圖」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	1843~1859 ^{d)}	18첩	미상
6	「大東方輿全圖」	규장각	필사본	19세기 중반	21첩	미상
7	「大東輿地圖」	규장각의 20여개 기관	목판본	1861	22첩	김정호

출처: a) 양보경(1999), b) 장상훈(2008), c) 이기봉(2005), d) 장진숙(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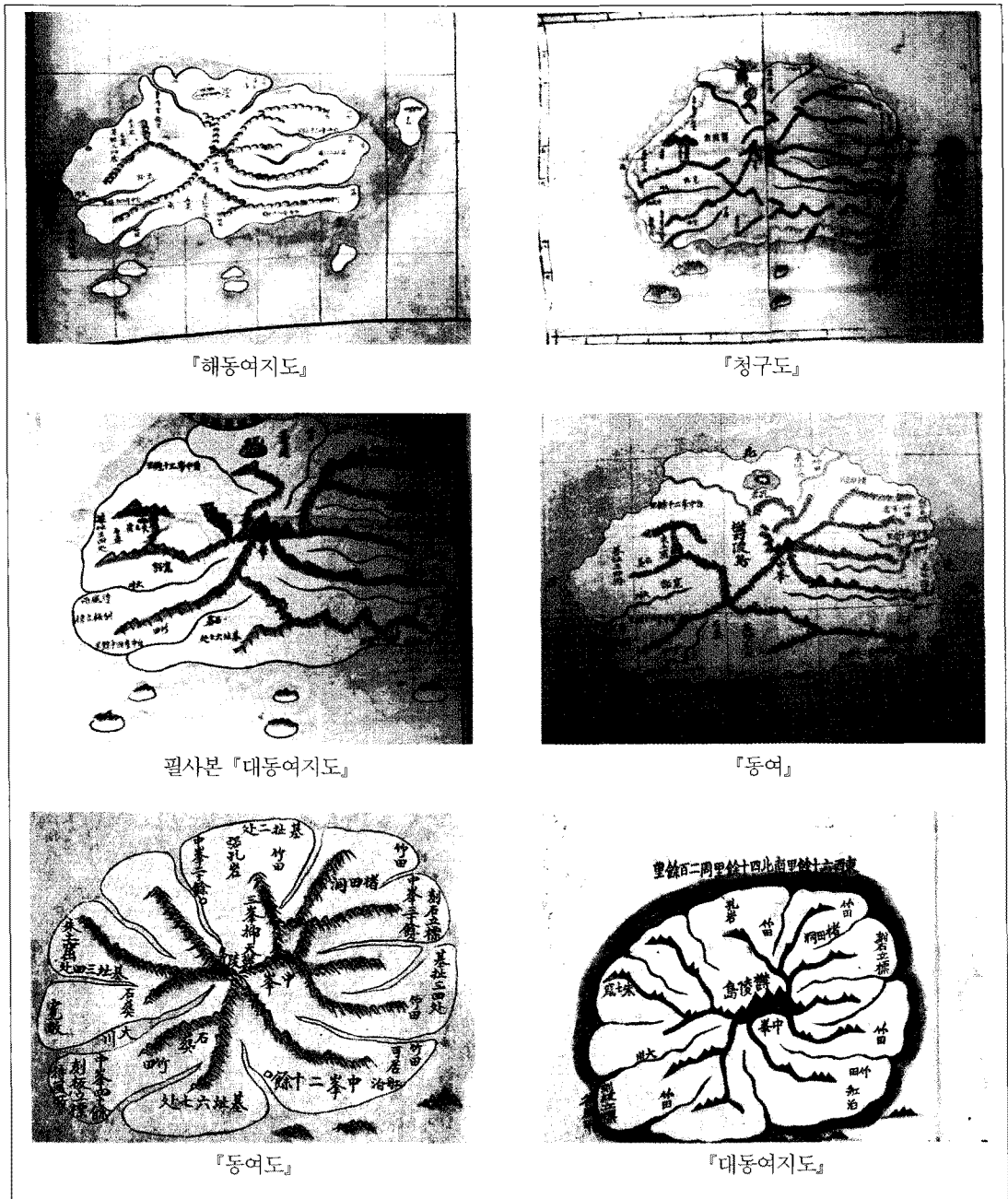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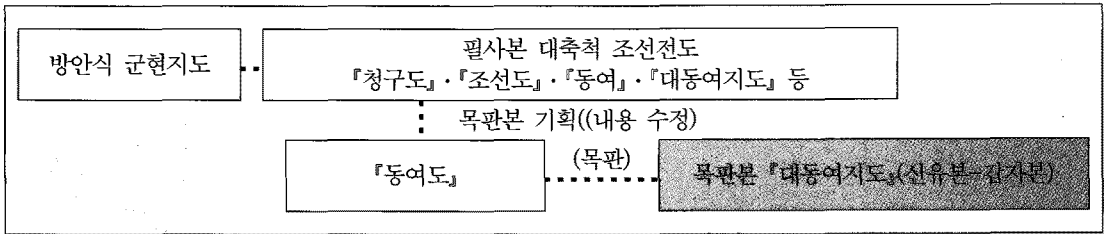


그림 2. 조선전도에 수록된 울릉도 지도

전부 5곳에 묘사되어 있다. 산맥의 표현은 대부분의 지도에서 성인봉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동여』의 경우 일부 줄기가 분리하여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산줄기의 형태는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서는 성인봉을 중

심으로 단일 줄기의 형태로 해안으로 뻗은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다른 지도에서는 울릉도 동남 해안 일대에서 동서로 뻗은 줄기가 있고, 북서쪽에 동서쪽에도 2차 줄기가 표현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출처: 김기혁, 오상학, 이기봉, 2007에 의거 수정)

그림 3. 『대동여지도』의 계열: 울릉도 사례

지도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천의 묘사방법이다. 『해동여지도』와 『청구도』, 『동여』와 필사본 『대동여지도』에서는 하천의 만입부는 6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서는 10곳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하천도 10개 유로로 묘사되어 있다. 유로의 형태는 다른 지도가 비교적 곡선으로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동여도』에서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두 지도에서 유로가 이전의 6곳에서 10곳으로 많아지는 것은 지리 정보의 양이 정확해져서가 아니라 산지의 모든 계곡에 하천을 일률적으로 그런 묘사방법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⁷⁾

이와 같이 묘사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해동여지도』와 『청구도』·『동여』·필사본 『대동여지도』 등의 네 지도의 내용은 『동여도』·『대동여지도』와 확연한 차이가 있어 이들 지도들은 내용상 두 계열로 구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 관계는 <그림 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울릉도에 대해 새로운 지리 정보가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두 계열의 지도에서 내용상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이전의 필사본 지도를 단순히 모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리정보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기획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목판의 밑그림을 제작하면서 방안체계, 수록 지명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지도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여도』는 『대동여지도』의 밑그림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동여지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먼 지명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3.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청구도』 수록 지명 비교

1) 도별 수록 지명

<표 2>는 『대동여지도』 수록 지명을 『청구도』와 비교한 것이다. 『청구도』에는 12,827개가 수록

표 2.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수록 지명

행정구역	『청구도』	『대동여지도』			차이 (D-A)
	총 지명수(A)	공통지명(B)	추가지명(C)	총 지명수(D) (D=B+C)	
총합계	12,827(100.0)	7,774(100.0)	3,478(100.0)	11,252(100.0)	-1,575
경기도	1,204(9.4)	622(8.0)	238(6.8)	860(7.6)	-344
충청도	1,482(11.6)	755(9.7)	332(9.5)	1,087(9.7)	-395
경상도	2,681(20.9)	1,470(18.9)	542(15.6)	2,012(17.9)	-669
전라도	2,171(16.9)	1,221(15.7)	655(18.8)	1,876(16.7)	-295
강원도	1,215(9.5)	863(11.1)	251(7.2)	1,114(9.9)	-101
황해도	1,042(8.1)	665(8.6)	195(5.6)	860(7.6)	-182
함경도	1,143(8.9)	902(11.6)	607(17.5)	1,509(13.4)	366
평안도	1,889(14.7)	1276(16.4)	658(18.9)	1,934(17.2)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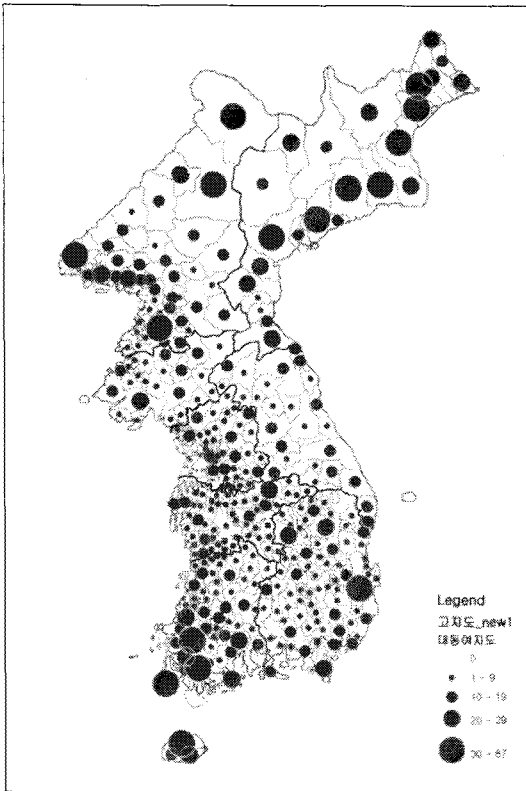


그림 4. 『대동여지도』 추가지명 분포

되어 있는 반면 『대동여지도』에는 11,252개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두 지도에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는 지명은 7,774개, 『청구도』에만 수록된 지명수는 5,053개이다. 『청구도』에서 이들 지명이 삭제되고, 3,478개의 지명을 새로 수록함으로써 『대동여지도』에는 총 11,252개의 지명이 수록되었다. 전체 지명수는 1,575개가 감소하였으나,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면서 『청구도』에서도 적지 않은 지명을 삭제하고, 새로운 지명을 추가한 것임을 의미한다.

도별로 볼 때 추가지명의 비율을 보면 평안도(18.9%)와 함경도(17.5%) 및 전라도(18.8%)가 높게 나타나며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은 10% 이하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명수는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만 각각 366개, 45개로 증가를 보이고, 다른 도에서는 감소하였다. 그 중 경상도(-669)가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다. 충청도(-395), 경기도(-344), 전라도(-295)는 비슷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함경도와 평안도에 접한 황해도와 강원도는

비교적 수록 지명수의 감소가 적다.

추가지명은 평안도(658)와 전라도(655), 함경도(607), 경상도(542)가 비교적 많은 반면 충청도(332), 경기도(238), 강원도(251), 황해도(195)는 비교적 적다.

『대동여지도』 추가지명의 군현별 분포는 <그림 5>와 같다. 40개 이상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평안도 후주(87)와 함경도 단천(59), 경성(41), 회령(40), 평안도 강계(48), 평양(46), 전라도 진도(45) 등이다. 30-39개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경상도 경주(35), 전라도 제주(37), 강진(35), 나주(35), 함경도 부령(38), 함흥(36), 길주(32), 북청(32), 평안도 의주(31) 등이다. 20개 이상의 지명이 분포하는 곳은 충청도 충주(20), 경상도 거제(27), 상주(20), 안동(20), 전라도 순천(26), 영광(26), 영암(24), 정의(22), 홍양(22), 황해도 해주(26), 함경도 경흥(29), 명천(29), 무산(27), 삼수(23), 안변(25), 영흥(22), 온성(25), 정평(21), 종성(24), 평안도 선천(20), 위원(24), 정주(20) 등이다. 이와 같은 분포는 함경도, 평안도의 해안의 관방 지역과 전라도 및 경상도 해안 지역에 새로운 지명이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추가되었음을 보여준다.

2) 유형별 수록 지명

<표 3>은 두 지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유형은 2,694개가 감소한 방리 지명이다. 이 지명은 『청구도』에 총 3,509개가 수록되어 있었으나 482개의 지명만 남기고 3,027개가 삭제되었다. 대신 333개의 지명이 추가로 수록되어 총 방리 지명수는 815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방리 지명이 대부분 삭제된 것은 목판본을 제작하면서 방리 지명 삭제라는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감소를 보이는 지명은 기타 지명(-209)과 창고(-52) 지명이다. 인문 지명 중 기타 지명은 『청구도』에 기재되었던 664개 중 398개를 삭제한 이후 189개 지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지명수는 총 455개로 줄어들었다. 창고 지명도 813개 중 183개를 삭제하고, 131개를 추가하여 전체 지명은 761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례 표시를 이용하여 창고 정보의 양은 유지되고 있다.

표 3. 유형별 수록 지명수

유형	『청구도』		『대동여지도』		차이 (D-A)	
	총 지명수(A)	공통 수록(B)	추가지명(C) (%, D/B)	총 지명수(D) (D=B+C)		
합계	12,827(100.0)	7,774(100.0)	3,478(100.0)	11,252(100.0)	-1,575	
자연 지명	산	2,423(18.9)	1,977(25.4)	673(19.4)	2,650(23.6)	227
	고개	1,192(9.3)	905(11.6)	384(11.0)	1,289(11.5)	97
	하천	958(7.5)	750(9.6)	549(15.8)	1,299(11.5)	341
	해안	1,005(7.8)	738(9.5)	359(10.3)	1,097(9.7)	92
인문 지명	읍치	347(2.7)	343(4.4)	1(0.0)	344(3.1)	-3
	방리	3,509(27.4)	482(4.4)	333(9.6)	815(7.2)	-2,694
	진(포)	248(1.9)	190(6.2)	204(5.9)	394(3.5)	146
	진보	541(4.2)	508(2.4)	251(7.2)	759(6.7)	218
	봉수	445(3.5)	408(6.5)	83(2.4)	491(4.4)	46
	역참	558(4.4)	489(5.2)	195(5.6)	684(6.1)	126
	창고	813(6.3)	630(6.3)	131(3.8)	761(6.8)	-52
	목장	46(0.4)	42(0.5)	54(1.6)	96(0.9)	50
	역사	78(0.6)	46(0.6)	72(2.1)	118(1.0)	40
	기타	664(5.2)	266(3.4)	189(5.4)	455(4.0)	-209

* (하천지명) 하천, 못, 평야 지명; (해안지명) 섬, 만 지명; (역사지명) 古邑·古城, 古國基; (진보지명) 진(鎭)·보(堡)·산성(山城); (기타지명) 누각, 정자, 대(台), 사찰, 운천

이들 지명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지명들은 대부분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증가 수치를 보이는 유형은 산과 하천 지명이다. 산 지명은 2,423개 중 446개 지명이 삭제되었으나 673개를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총 지명수는 227개가 증가하였다. 하천 지명은 『청구도』에 수록된 958개의 지명 중 208개를 삭제하였으나 549개 지명을 추가함으로써 총 341개가 늘어난 1,299개가 기재되었다. 그 비율도 15.8%로 산지(19.4%) 다음으로 높다. 인문 지명 중에서 추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명은 진보 지명이다. 이 지명은 『청구도』의 541개 중 33개가 삭제된 대신 251개가 증가하여 759개가 되었다. 진(포) 지명도 146개가 증가되었다. 이외에 역참 지명도 126개가 증가하였다. 섬, 봉수, 목장 지명은 다른 지명에 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에서 각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방리 지명과 기타 지명만을 제외하고 전부 증가하였다. 이는 방리 지명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지리 정보를 다양하게 기재하려 했던 의

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방리 지명은 감소되었으나 추가된 지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삭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는 지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별 변화를 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경기도는 방리 지명 외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 지명이 56개가 삭제되나 70개가 추가되어 14개가 증가하였다. 진(포) 지명은 8개, 역참 지명 8개, 목장 지명이 7개가 증가하였다. 반면 하천과 섬 지명은 각각 6개, 기타 지명은 42개가 감소하였다.

충청도는 하천, 진(포) 및 진보 지명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천 지명은 『청구도』에서 23개가 삭제되었으나 61개가 추가 기재되어 전체 100개에서 138개로 증가되었다. 진(포) 지명은 8개가 삭제되었으나 31개가 추가되어 33개에서 56개로 증가하였다. 진보 지명은 2개가 삭제되었으나 30개가 추가되어 28개가 증가되었다. 감소된 지명으로는 창고와 기타 지명 및 섬 지명이 있다. 창고 지명은 61개 중 16개가 삭제되고 2개만이 새로 추가되었다. 섬 지명은 1개가 감소되나 『청구도』

표 4. 도별 지명의 유형별 분포

道	地名	自然地名				人文地名								
		山	峴	河川	海岸	坊里	津·浦	城郭	烽燧	驛站	倉	牧場	歷史	其他
경기도	『청구도』(A)	226	69	100	88	406	29	57	21	52	26	9	6	76
	『대동여지도』(B)	240	69	94	82	72	37	60	25	60	25	16	8	34
	증감(B-A)	14	0	△6	△6	△334	8	3	4	8	△1	7	2	△42
	공통(C)	170	44	67	64	43	24	53	21	48	17	6	4	24
	신지명(D=B-C))	70	25	27	18	29	13	7	4	12	8	10	4	10
충청도	『청구도』(A)	270	113	100	96	523	33	48	31	68	61	3	3	78
	『대동여지도』(B)	273	124	138	95	67	56	76	32	83	47	4	6	31
	증감(B-A)	3	11	38	△1	△456	23	28	1	15	△14	1	3	△47
	공통(C)	209	78	77	65	43	25	46	31	65	45	2	2	12
	신지명(D=B-C))	64	46	61	30	24	31	30	1	18	2	2	4	19
경상도	『청구도』(A)	562	207	156	180	786	48	94	107	147	145	4	14	156
	『대동여지도』(B)	554	205	195	153	109	64	132	113	178	130	17	21	67
	증감(B-A)	△8	△2	39	△27	△677	16	38	6	31	△15	13	7	△89
	공통(C)	448	156	107	123	56	30	90	95	134	110	4	10	33
	신지명(D=B-C))	106	49	88	30	53	34	42	18	44	20	13	11	34
전라도	『청구도』(A)	320	164	123	402	648	48	62	53	70	95	21	8	98
	『대동여지도』(B)	401	162	191	447	106	78	92	56	77	92	40	17	58
	증감(B-A)	81	△2	68	45	△542	30	30	3	7	△3	19	9	△40
	공통(C)	264	115	91	304	47	41	59	51	62	70	21	1	36
	신지명(D=B-C))	137	47	100	143	59	37	33	5	15	22	19	16	22
강원도	『청구도』(A)	255	155	122	30	343	26	34	8	83	59	0	12	61
	『대동여지도』(B)	268	170	146	42	170	27	45	10	89	54	0	5	62
	증감(B-A)	13	15	24	12	△173	1	11	2	6	△5	0	△7	1
	공통(C)	217	127	105	23	140	18	30	8	76	48	0	3	42
	신지명(D=B-C))	51	43	41	19	30	9	15	2	13	6	0	2	20
황해도	『청구도』(A)	252	90	95	52	260	24	39	41	37	56	3	9	60
	『대동여지도』(B)	256	87	113	64	48	37	43	39	43	48	5	9	44
	증감(B-A)	4	△3	18	12	△212	13	4	△2	6	△8	2	0	△16
	공통(C)	215	63	77	43	36	20	34	37	29	46	3	6	32
	신지명(D=B-C))	41	24	36	21	12	17	9	2	14	2	2	3	12
함경도	『청구도』(A)	182	136	105	46	145	22	88	87	51	168	5	9	74
	『대동여지도』(B)	259	196	190	83	101	53	139	109	75	156	9	21	93
	증감(B-A)	77	60	85	37	△44	31	51	22	24	△12	4	12	19
	공통(C)	157	120	95	39	57	19	86	74	40	127	5	7	51
	신지명(D=B-C))	102	76	95	44	44	34	53	35	35	29	4	14	42
평안도	『청구도』(A)	356	258	157	111	398	18	119	97	50	203	1	17	61
	『대동여지도』(B)	399	276	232	131	142	42	172	107	79	209	5	31	66
	증감(B-A)	43	18	75	20	△256	24	53	10	29	6	4	14	5
	공통(C)	297	202	131	77	60	13	110	91	35	167	1	13	36
	신지명(D=B-C))	102	74	101	54	82	29	62	16	44	42	4	18	30

에 수록된 96개 지명 중 31개가 삭제되고 30개가 추가로 기재된 결과이다. 산 지명도 지명수의 변화는 3개에 불과하나 270개의 지명 중 61개가 삭제되고 64개의 지명이 추가로 기재되었다.

경상도에서 지명 수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유형은 39개가 증가한 하천 지명과 각각 38개, 31개가 증가한 진보, 역참 지명이다. 하천 지명은 156개의 지명 중 49개의 지명이 삭제되고, 88개의 지명이 추가로 기재되어 195개가 수록되어 있다. 진보 지명은 기존의 94개 중 4개만 삭제되고 42개가 기재되어 총 지명수는 132개로 증가하였다. 역참은 13개의 지명이 삭제된 대신 44개의 지명이 추가되었다. 수록 지명이 감소된 것은 섬 지명이다. 180개 지명 중 57개의 지명이 삭제되었으나 30개만 추가로 기재되어 전체 지명은 153개로 감소되었다. 기타 지명은 156개의 지명 중 123개가 삭제되고 불과 34개의 지명만 추가되어 지명수는 67개로 감소되었다.

전라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지명은 산, 하천, 섬 지명이다. 산 지명은 총 320개의 지명 중 5개가 삭제되었으나 137개가 추가로 기재되어 지명수는 81개가 늘어난 401개이다. 하천 지명도 32개가 삭제되었으나 100개를 추가로 수록함으로써 123개에서 191개로 증가하였다. 진(포), 진보 지명도 이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면 고개 지명은 49개를 삭제하였으나 47개를 추가로 기재하여 전체 지명 수는 2개가 감소하였다. 기타 지명은 98개 중 62개를 삭제하고 22개의 지명을 추가하였다.

강원도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는 지명은 하천 지명이다. 122개 중 17개를 삭제하고 41개의 지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전체적으로 24개가 증가하였다. 산은 38개를 삭제하고 51개를, 고개 지명은 28개를 삭제하고 43개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섬 지명도 30개 중 7개를 삭제하고 19개를 추가로 기재하고 있다. 황해도도 강원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하천 지명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95개의 지명 중 18개를 삭제하고 36개를 추가로 기재하여 18개가 증가하였다. 진(포) 지명은 4개를 삭제하고 17개를 추가로 기재하여 13개가 늘어났다. 산 지명은 37개를 삭제하고 41개를 추가로 기재하고 있다. 고개 지명은 3개가 줄었으나 『청구

도』에 수록된 90개의 지명 중 27개를 삭제하고 24개의 지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수록 지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다.

함경도는 방리와 창고지명을 제외한 전체 지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 지명의 증가가 뚜렷하다. 182개의 산 지명에서 25개만 삭제하고 102개의 지명을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지명수는 77개가 증가하였다. 고개 지명도 16개를 삭제하는 대신 76개를 추가로 기재하여 지명수는 60개가 증가하였다. 하천 지명의 증가 폭도 매우 크다. 총 105개의 지명 중 10개를 삭제하고 95개의 지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총 지명수는 85개가 늘어났다. 이외에 섬, 진(포) 지명도 각각 37개, 31개가 증가하였다. 진보 지명의 변화도 적지 않다. 총 88개의 지명 중 2개만 삭제하고, 53개의 지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전체 139개의 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평안도에서 높은 증가를 보이는 지명은 하천, 진보, 산 지명이다. 하천 지명은 157개의 지명 중 34개를 삭제하고 대신 101개의 지명을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전체 지명은 157개에서 234개로 증가되었다. 119개이었던 진보 지명에서 9개만 삭제하고 62개를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지명 수는 53개가 증가하였다. 산 지명은 356개의 지명 중 59개가 삭제되고 102개가 추가되어 지명수는 399개로 증가되었다. 한편 기타 지명은 다른 도에서는 대부분 수록 지명이 감소되고 있으나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증가를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이상과 같이 두 지도의 수록 지명의 변화를 바탕으로 볼 때 지역별로 적지 않은 변화를 시도하였음을 보여준다. 경상도, 전라도 및 함경도, 평안도를 중심으로 지명이 재편되었다. 유형별로 볼 때는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지명과 진보, 산성 등의 관방과 관련된 지명에서 차이를 보인다. 함경도에서는 하천, 산, 관방 지명, 평안도에서는 하천 지명, 전라도에서는 산 지명을 중심으로 수록 지명을 재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대동여지도』 추가지명의 유형별 분포

1) 자연지명

『대동여지도』에 추가되는 자연지명의 군현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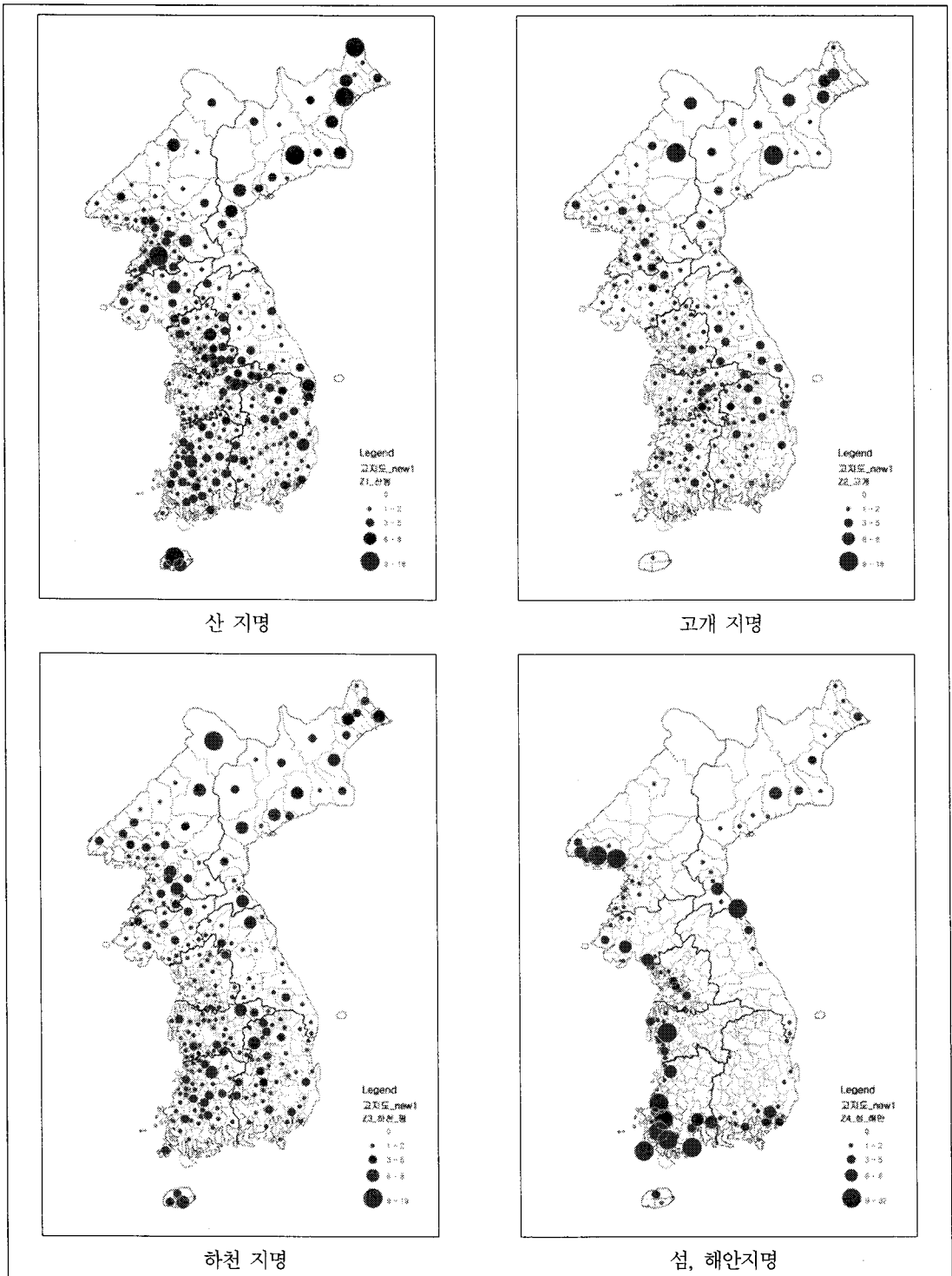


그림 5. 『대동여지도』 추가지명 분포(자연지명)

포는 <그림 6>과 같다. 산 지명은 262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새로운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갑산, 평안도 초산, 황해도 웅진, 강원도 고성, 경기도 고양, 충청도 태안, 전라도 고산, 경상도 울산 등 총 161개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무산, 평안도 영변, 황해도 평산, 경기도 강화, 충청도 충주, 전라도 부안, 경상도 기장 등 82개 군현이다. 6~8개의 새로운 지명이 수록된 군현은 함경도 회령, 평안도 위원, 황해도 서흥, 강원도 울진, 경기도 양주, 충청도 괴산, 전라도 장성, 경상도 경주 등 14개 군현이다. 9개 이상의 새로운 지명이 기재된 곳은 평안도 평양(18), 함경도 단천(11), 부령(10), 온성(9), 전라도 제주(10) 등 5개 군현이다. 이와 같이 산지 지명은 전체적으로 함경도와 평안도 및 경기도 내륙과 전라도 해안 지역에서 지명이 추가되었음을 보인다.

고개 지명은 180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새로운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온성, 평안도 안주, 황해도 봉산, 강원도 양구, 경기도 과천, 충청도 비인, 전라도 광양, 경상도 거제 등 138개 군현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삼수, 평안도 자산, 황해도 수안, 강원도 삼척, 경기도 광주, 충청도 청주, 전라도 순천, 경상도 안동 등 34개 군현이다. 6~8개의 새로운 지명이 수록된 군현은 함경도 회령, 평안도 의주 등 6개 군현이다. 9개 이상의 새로운 지명이 기재된 곳은 함경도 단천(18), 평안도 강계(12) 등 2개 군현이다. 이상과 같은 분포는 고개 지명이 전체적으로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 추가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천 지명은 228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길주, 평안도 영유, 황해도 곡산,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개성, 충청도 부여, 전라도 김제, 경상도 고성 등 총 155개이다. 3~5개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이원, 평안도 창성, 황해도 해주, 강원도 정선, 경기도 영평, 충청도 서산, 전라도 순창, 경상도 김해 등 57곳의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새롭게 수록된 군현은 함경도 안변, 평안도 강계, 강원도 회양, 충청도 충주, 전라도 정의, 경상도 상주 등 15개 군현이다. 9개 이상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평안도 후주(19) 1곳 뿐이다. 이상과 같은 분포로 보아 하천 지명은 주로 함경도 해안지방, 평안도 남부 내륙 및 전라도 북부와 경상도 북부 내륙지역에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안 지명은 98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새로운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부령, 평안도 가산, 황해도 강령,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강화, 충청도 서산, 전라도 무안, 경상도 칠원 등 총 59개 군현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경흥, 평안도 의주, 경기도 부평, 충청도 보령, 전라도 낙안, 경상도 웅천 등 19개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새롭게 수록된 군현은 함경도 덕원, 평안도 용천, 황해도 연안, 전라도 광양, 경상도 김해 등 10개 군현이다. 9개 이상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평안도 정주(12), 선천(10), 강원도 흡곡(9), 충청도 홍주(10), 전라도 진도(32), 나주(16), 영암(15), 강진(13), 영광(11), 홍양(9) 등 10개 군현이다. 이상과 같은 분포는 해안 지명이 전체적으로 함경도 원산과 경흥의 해안 일대, 평안도 의주 일대와 전라도 남서부 해안 및 충청도 해안 지역에서 추가되었음을 보여준다.

2) 인문지명

『대동여지도』에 추가된 인문 지명의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방리 지명은 174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장진, 평안도 상원, 강원도 양구, 황해도 금천, 경기도 시흥, 충청도 석성, 전라도 대정, 경상도 문경 등 총 144곳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경성, 평안도 위원, 경기도 수원, 충청도 청주, 전라도 나주, 경상도 의성 등 25개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새로 기재된 군현은 함경도 함흥, 경상도 경주 등 2개 군현이다. 9개 이상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평안도 후주(30), 강계(13), 전라도 제주(9) 등 3개 군현이다. 이와 같이 방리 지명은 평안도의 폐사군 일대 지역과 제주도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포) 지명은 122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길주, 평안도 광산, 강원도 금성, 황해도 황주, 경기도 교동, 충청도 남포, 전라도 나주, 경상도 거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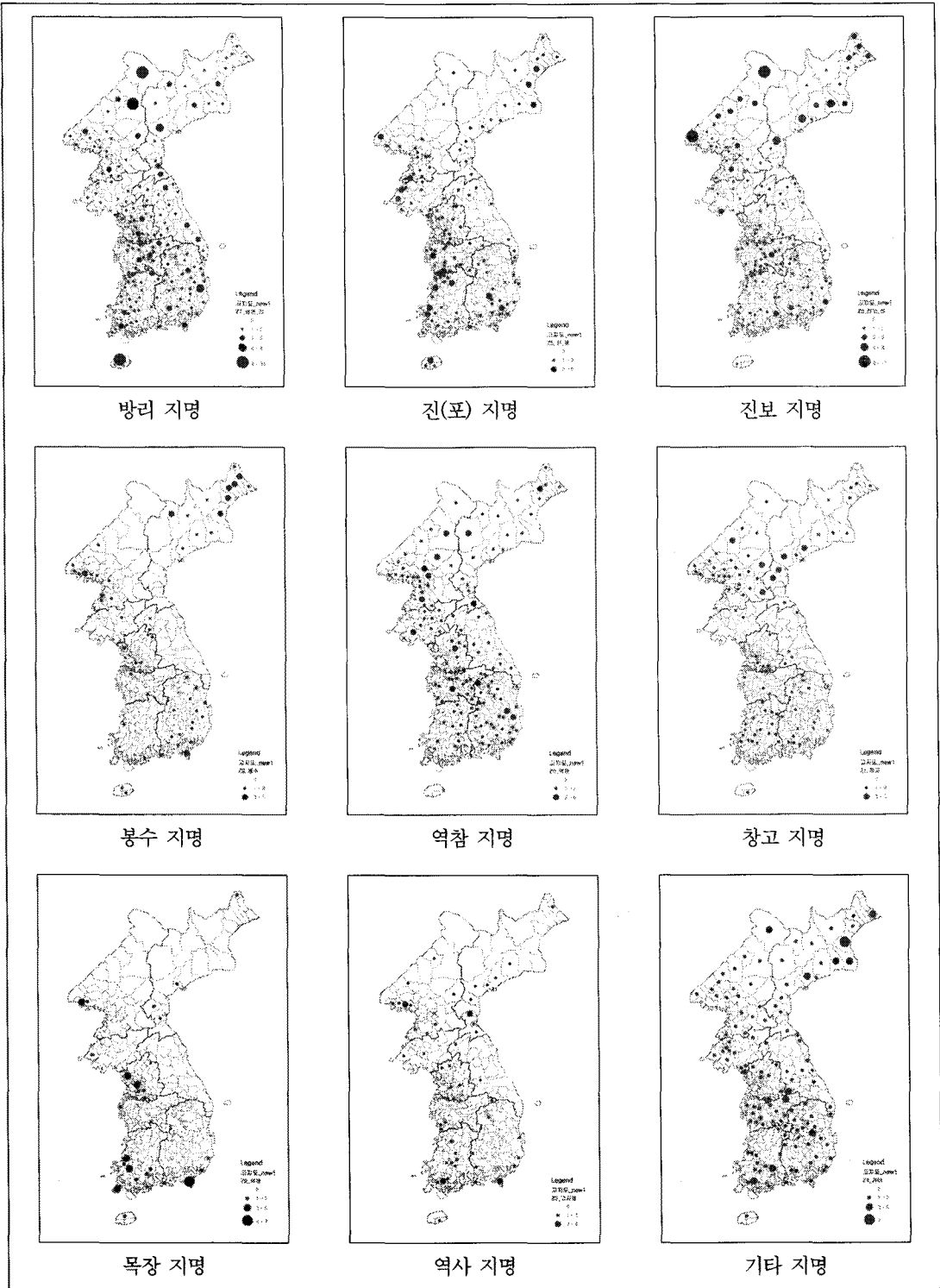


그림 6. 「대동여지도」 추가지명 분포(인문 지명)

총 105곳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부령, 평안도 의주, 황해도 장연, 충청도 한산, 전라도 함평, 경상도 창녕 등 15개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함경도 명천, 황해도 풍천 등 2개 군현이다. 이상과 같은 분포는 이 지명이 주로 함경도의 해안 지방과 전라도 및 평안도의 해안 일대에서 추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진보 지명은 150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부령, 평안도 삭주, 강원도 통천, 황해도 강령, 경기도 남양, 충청도 공주, 전라도 능주, 경상도 기장 등 총 129개 군현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온성, 평안도 초산, 충청도 청주, 전라도 광양, 경상도 울산 등 16개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함경도 길주, 북청, 정평, 평안도 의주 등 4개 군현이다. 9개 이상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평안도 후주(17) 한 곳이다. 이상과 같이 진보 지명은 전체적으로 평안도의 압록강 일대, 함경도의 해안지방에 주로 추가되었음을 보여준다.

봉수 지명은 52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단천, 평안도 함흥, 강원도 철원, 황해도 강령, 경기도 강화, 충청도 면천, 전라도 무장, 경상도 웅천 등 총 42곳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회령, 평안도 선천, 경상도 거제 등 10개 군현이다. 이와 같이 봉수 지명은 전체적으로 함경도의 북동부 변방 지역과 평안도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가되었다.

역참 지명은 133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삼수, 평안도 박천, 강원도 통천, 황해도 신계, 경기도 가평, 충청도 괴산, 전라도 무주, 경상도 웅천 등 총 119곳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장진, 평안도 개천, 경기도 양주, 충청도 공주, 경상도 문경 등 12개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평안도 강계 등 2개 군현이다. 이상과 같은 분포를 보았을 때 역참 지명은 전체적으로 평안도 내륙의 의주로 일대와 한양과 동래를 잇는 영남로 일대에 지명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고 지명은 91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종성,

평안도 박천, 강원도 원주, 황해도 서흥, 경기도 광주, 충청도 서산, 전라도 고부, 경상도 곤양 등 총 83곳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북청, 평안도 양덕, 경상도 영천(榮川) 등 8개 군현이다. 이상과 같이 창고 지명은 주로 함경도 남부의 해안 지역 일대와 평안도의 양덕 등 압록강 중류에서 주로 추가되어 있다.

목장지명은 27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곳은 함경도 문천, 평안도 선천, 황해도 장연, 경기도 남양, 충청도 태안, 전라도 낙안, 경상도 남해 등 총 20개 군현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평안도 철산, 경기도 인천, 전라도 나주 등 6개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경상도 거제 한 곳이다. 이상과 같이 목장 지명은 전체적으로 평안도, 경기도의 해안 지방과 전라도의 다도해 일대에 추가되어 있다.

역사 지명은 54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홍원, 평안도 삭주, 강원도 이천, 황해도 강령, 경기도 장단, 충청도 서천, 전라도 동북, 경상도 기장 등 총 50개 군현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고원, 평안도 꾀산, 경상도 거제 등 3개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전라도 강진 1곳이다. 이와 같이 역사지명의 추가는 전체적으로 평안도와 함경도, 전라도의 해안에 연한 군현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지명은 123개 군현에서 지명이 추가되었다. 1~2개의 지명이 추가되는 군현은 함경도 정평, 평안도 영변, 강원도 흡곡, 황해도 안악, 경기도 안성, 충청도 서산, 전라도 금산, 경상도 순흥 등 총 111개 군현이다. 3~5개의 지명이 추가된 곳은 함경도 북청, 평안도 후주, 강원도 울진, 충청도 충주, 전라도 강진, 경상도 의흥 등 11개 군현이다. 6~8개의 지명이 추가된 군현은 함경도 경성 한 곳이다. 이와 같이 기타 지명은 주로 함경도 해안지방, 강원도 내륙과 평안도에서 추가되었다. 특히 함경도는 사찰과 온천, 평안도는 온천 지명수가 높게 나타난다.

5. 맺음말 및 논의

본 연구는 목판본 『대동여지도』 제작의 저본으

로 알려진 필사본 지도인 『청구도』와 비교함으로써 목판본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수록 지명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도』가 저본임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에서 수록 지명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전체 지명수는 『청구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외형적인 수치일 뿐이다. 『청구도』에 수록된 약 5,000여개의 지명을 삭제하고 대신 3,400여개의 지명을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내용상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지명 유형별로 보았을 때 『청구도』에서 가장 많이 삭제된 지명은 약 3,500여개에 달하는 방리 지명이다. 특히 면지명에서 일률적인 삭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목판본 제작시 삭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명이 삭제된 대신 다른 유형은 지명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추가지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산과 하천, 해안 지명과 함께 진(포) 지명, 진보 지명, 역참 및 창고 지명 등이다. 이와 같이 수록 지명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 지도 제작 과정에서 일정한 수록 원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명 변화는 지역별,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충청도는 다른 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경상도, 전라도 및 함경도, 평안도를 중심으로 지명이 재편되었다. 유형별로는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지명과 진보 등의 관방 내용을 수록한 지명들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 함경도에서는 하천, 산, 관방 지명, 평안도에서는 하천 지명, 전라도에서는 산 지명을 중심으로 지명이 변하는 것이 이의 예이다.

유형별로 볼 때 자연 지명 중 산 지명은 함경도 해안, 평안도 내륙과 경기도 및 강원도의 내륙을 중심으로 지명이 추가되었다. 고개 지명은 함경도와 평안도의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새롭게 기재되었다. 해안 지명은 동해안에서는 추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서해안의 전라도, 충청도 및 평안도 일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명이 수록되었다.

인문 지명에서 방리 지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졌으나 평안도의 북부 지역과 제주도에서는 새로운 지명이 추가되기도 했다. 진보 지명은 평안도 북부와 함경도 해안 지역에서 뚜렷하며 봉수와 창고 지명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목장 지명은 경상도 남해안 일대, 전라도 남서해안, 경기도 서해안 및 평안도 해안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와 같은 인문 지명의 분포 변화는 자연 지명과 비교해 볼 때 분포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군사방어적인 성격을 지니는 진보, 봉수, 역참, 창고 지명은 북부 지역에서 집중 분포한다. 목장 지명이 대거 새롭게 기재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볼 때 목판본 『대동여지도』 제작과정에서 면 지명을 일괄적으로 삭제하고 국가 경영 및 군사적인 내용이 담긴 지명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지명의 분포는 일정한 지리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도 제작에서 나타난 지명의 삭제와 추가 등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일정한 원칙은 지도 제작 과정에 여러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대동여지도』에는 『청구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지명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지도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지리정보가 유입되었다는 증거이다. 추가된 지리 정보가 어느 자료로부터 기원되었는지가 파악되면 지도 제작 과정의 일 측면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명 변화에서 나타난 일정한 수록 원칙은 제작자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사회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결과이며, 그 결과 이전의 필사본 지도와는 내용이 매우 다른 지도로서 출현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대동여지도』를 단순히 지도 제작 기술 발달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지도를 사회에서 효율적인 지리 정보의 소통을 위한 결과물임을 중시하는 현대의 지도 이론과 접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

- 1) 당시 수요자의 범위는 목판본의 양적 한계로 인해 소수였을 것이며, 이들은 지도에 수록될 지리 정보를 선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2) 현재 남아 있는 『대동여지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채(加彩)되어 있는 것도 당시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여지도』의 가채 형태는 군현별로 색채를 다르게 한 것과, 범례에만 가채한 것, 가채되지 않은 것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해안의 가채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김기혁, 2008).

- 부산고지도)
- 3) 이 두 지도는 웹을 통해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는데, 해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명 등의 지리 정보가 제공된다.
 - 4) 이의 예로서, 봉수와 산 지명이 중첩된 경우는 봉수 지명, 봉수와 진보(鎭堡)가 있는 경우는 진보지명, 봉수와 역참이 중첩된 경우는 역참지명으로 분류하였다.
 - 5) 기존 연구 중 「大東輿地圖索引」(조선총독부, 1936)에는 11,600개, 『대동여지도 색인』(경희대학교, 1976)은 11,559개, 박관섭(1980)은 11,600개라 하였다. 원경렬(1989)은 11,580개, 이우형(1990)은 11,760여개, 양보경(1995)은 11,760여개로 밝히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서 오상학(2001)은 13,188개, 김종혁(2008)은 11,603개 등으로 수록된 지명 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 6) 최근 미국 밀워키대학 대학 도서관 소장본은 면지명이 필사로 추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연합뉴스, 2010년 11월 24일 기사).
 - 7) 이는 육지에서 하천 묘사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유사하다 김기혁(2005)에서는 『대동여지도』 동래부 부분에서 약 8곳의 위치 정보가 『청구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물길 표현 방법의 차이에 기인함을 밝혔다.

문헌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편, 1936, 『대동여지도』 색인, 조선총독부도서관.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76, 『대동여지도』 색인.

국립중앙박물관, 2007, 박물관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나다, 열린박물관.

국토지리정보원(국립지리원), 2001,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자료집).

국토지리정보원, 2009, 한국지도발달사.

김기혁, 2004, 청구도의 이본 유형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71-175.

김기혁, 2006, 우리나라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의 유형 및 관리 실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1(6), 714-739.

김기혁, 2007,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3), 301-320.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東國地圖 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9(1), 19-36.

김기혁, 2008, 부산고지도,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김기혁·오상학·이기봉, 2007, 울릉도·독도 고지

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두일, 1994, 『대동여지도』의 도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9(1), 39-45.

김종혁, 2008, 고지명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19세기 지명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특징, 문화역사지리 20(3), 51-78.

박관섭, 1980, 도법계보면에서 본 『대동여지도』의 분석, 지리학회지 1, 16-24.

배우성, 2006, 『대동여지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과학사학회지 28(1), 117-138.

양보경, 1995,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한국사 시민강좌 16호, 일조각, 84-121.

양보경, 1999, 일본 대판부립도서관 소장 〈조선도〉의 고찰, 서지학연구, 17, 421-436.

오상학,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27-40.

원경렬, 1989, 『대동여지도』의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봉, 2004, 김정호의 『청구도』 제작 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3), 473-493.

이기봉, 2005, 김정호의 『동여도』 제작 시기에 대한 일 고찰, 문화역사지리, 17(3).

이상태, 1991,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와 사상, 지리학 26(2), 139-144.

이 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장상훈, 2008, 조선후기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의 제작과 『조선도』, 문화역사지리 1, 20(1), 79-94.

장진숙, 200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영우, 안휘준, 양보경, 1995, 고지도와 한국문화, 문화역사지리 7, 39-6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www.e-kyujanggak.snu.ac.kr>

• 교신 : 김기혁,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khkim@pusan.ac.kr, 전화: 051-510-2660

Correspondence: Kim, Ki-hyu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hkim@pusan.ac.kr, Phone: 051-510-2660

(접수: 2010.3.12, 수정: 2010.4.17, 채택: 2010.5.11)